

原典上에 表出되고 있는 三焦의 生理作用에 對한 語源的 考察

成樂箕*

I. 緒論

肝, 心, 脾, 肺, 腎 또는 膽, 小腸, 大腸, 膀胱 등 所謂 五臟五腑에 대한 生理作用은 전문가가 아니라 하여도 어느 정도는 그 形態와 作用을 상상할 수 있고 또한 認識이 가능한 器管들이지만, 名稱은 물론이고 그 形態조차 존재하지 않는 韓方特有의 三焦에 대한 精確한 意義를 아는 사람은 전문가라 하여도 그다지 많지가 않다. 이처럼 曖昧模糊한 “三焦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古來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많은 醫子들에 의하여 다양한 學說이 발표되었으나 그 學說의 근거가 科學的인 것이 아닌 個個人의 思考와 推測을 근거로한 것이라는 점에서 確固한 定說이 되지 못하고 있다. 臟腑說에 대한 東洋醫學과 西洋醫學의 概念의 懸隔한 차이는 事物에 대한 發想과 思考方式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前者는 自然哲學을, 後者는 自然科學을 根幹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무릇 물체에는 形態와 效用 그리고 心等 세가지가 있다. 形態란 그 물체의 圖形을, 效用은 그 물체의 作用 또는 役割을 의미하고 있다. 形態와 效用의 兩者는 하나의 물체에 兩立하여 존재하고 있지만 때로는 一方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宇宙上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現象中에는 形態가 없고 作用만이 존재하는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곧 春夏秋冬 四季節의 春緩, 夏

熱, 秋冷, 冬寒등이라 하겠다. 이들은 그 어느 것이나 形態는 없고 作用만이 있다. 方向, 強弱, 人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람의 경우에도 다양한 作用은 있지만 일정한 形態는 없다. 韓方特有의 三焦라고 하는 臟器가 上焦, 中焦, 下焦 등 三個로 분류 各各 특유의 作用이 있다고 記述되고 있지만 일정한 形態는 없다. 針灸醫學上에서도 氣血이라고 일컫는 二大에너지를 끊임없이 生體 구석 구석까지 보급하는 作用을 지닌 經絡이라는 것이 있다고 記述되고 있지만 역시 일정한 形體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西洋的 物質的 思考方式上에서는 볼때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물체에는 形態, 作用 외에도 心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確固한 사실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心”의 意義에 對해서 일반적으로는 知識, 感情, 意志의 總體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이 밖에도 精神作用, 配慮, 人情, 氣分등등 사용처에 따라서 無限하게 전개될 수가 있다. 특히 東洋醫學的인 側面에서의 心은 불교에서 말하는 以心傳心의 경우가 가장 적합한 心의 定義라 하겠다. 말을 하지 않고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지를 推知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心인 것이다. 三焦의 概念도 그같은 범주에 속한 것이라 일단 定義를 하면서 여기에 새삼 三焦의 意義를 語源을 근거로 考察하고자 하는 이유는 東洋醫學에서의 生理現象은 그 용어가 나타내는 文字 이외에서 보다 확고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科學이 전무했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던 上古時代에 오로지 生理的現象만을 根據로 命名된 東洋醫學의 臟腑의 명칭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自然科學을 근거로 해석되고 있는 서양의 臟腑명칭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三焦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三焦라는 言語가 내포하고 있는 語源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檢査가 必須不可缺하다고 생각된다.

“三焦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사가 불가결하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三焦라고 하는 語源의 연구와 검사다. 語源연구에 기필 유념할 저은 東洋最古의 古典으로 알려지고 있는 皇帝內徑은 漢文이라고 하는 中國語 즉 外國語로 쓰여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外國語에는 外國語로서 文法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규칙이 있고 법칙과 관용도 있다. 또한 外國語의 작품에는 그 나라의 風俗, 思想, 慣習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韓國的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해서는 不可하다. 또 한가지 原典의 문장은 上古의 漢語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漢語는 통상 上古漢語, 中古漢語, 現代漢語의 세가지로 大別되고 있다. 上古漢語는 周末에 만들어진 <詩經>에 보이는 言語를 母體로 漢末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동안 사용되어온 古典的漢語로 原典은 이 古典的漢語인 上古漢語로서 記述되고 있다. 中古漢語는 三國時代 卽 紀元後 三, 四世紀頃에서 부터 六朝와 隋唐時代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온 漢語로 지금의 中國 諸方言(北京語, 廣東語, 上海語)의 母體가 되어 現代漢語가 된 것이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東洋醫學최고의 醫全인 素問이나 靈樞經에 三焦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일이

라 하겠다. 三焦를 비롯한 의학용어는 결코 현대인의 단적인 創作物이 아닌 것이다. 200餘年前에 많은 학자에 의해서 연구되고 경험된 사실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原典을 검사함에 있어서 그 일부만을 보고 전반을 추론한다는 것은 왕왕 큰 誤謬를 犯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慎重하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原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장이나 言語가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거나 혹은 같은 사항을 여러가지 부분으로 분리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慎重의 慎重이 필요하다.

세번째의 요건은 東洋醫學의 生理觀은 지금부터 2000餘年前의 中國사람의 환경속에 成立되고 그 당시의 학자들의 思考와 判斷에 依據해서 成立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原典의 검사는 어디까지나 現代感覺이 아닌 그 시대 그 사람들의 感覺을 지니고 연구, 검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 언급한 세가지는 古典醫學用語를 解釋하는 경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必須條件이라 하겠다.

II. 本論 및 考察

(1). 語源上에서 본 三焦의 意義

東洋醫學에서 본 三焦의 기본적인 성격은 三焦라 일컫는 言語에 內包되고 있다. 從來에는 漢字에 대해서 表意文字라는 通念下에서 漢字의 字形만을 考察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릇된 관념이 있었는가 하면 漢字의 字形이 변하면 그 의미도 변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학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文字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文字가 생기기 전에 言語가 존재하였고 그 言語를 글로 표시하기 위해서 文字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言語가 있었기 때문에 가란 文字가, 사람이란 言語가 있었기 때문에 인이암 文字로 그 言語를 글로 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言語를 표시하지 않고 의미만을 나타내는 불완전한 形態의 文字는 단 한자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이같은 논리상에서 漢文字란 단순히 表意文章이 아니고 表意文字인 것이다. 東洋醫學의 Bible로 指稱되고 있는 중국최고의 의서인 皇帝內徑 素問, 靈樞上에 기술되고 있는 三字는 숫자의 3을 나타낸 指事文字이지만 때로는 “三三五五”, “三戰三勝”과 같이 不定의 複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東洋醫學上의 三焦의 “三”자의 유래는 단순히 上焦, 中焦, 下焦등 三個區域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熱作用, 氣血津液의 調整作用, 水瀉作用중 三大作用이 있다는 점에서 유래된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三焦의 명칭유래가 부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作用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尙今도 많은 학자들간에 論亂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前者 즉 三大作用說이 三大部分說보다 優位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三焦의 “焦”의 語源을 考察한다면 어렵지 않게 首肯할 수가 있다. 즉 焦자는 “佳와火”를 組合해서 형성되는 會意文字로 추(佳)를 火로 쪼여 구어서 쪼글쪼글 오그라 드는 것을 의미하는 文字인 것이다. 추와 同系인 言語에는 秋가 있다. 秋는 “禾와火”를 조합한 文字로 禾는 벼나 수수등의 작물이 익어서 이삭이 처진모습이며, 火는 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물체가 건조해서 수축하는 季節을 秋라 하는 것도 이같은 연유를 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三焦의 焦는 佳가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火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加熱과 더불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다량의 水蒸氣를 含有하고 있는 蒸氣의 上昇이라 하겠다. 두번째는 脂肪이 녹아서 液이되어 밑바닥에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세번째는 佳의 肌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마지막에는 꺼칠 꺼칠한 찌꺼기만 남게 된다.

제일의 현상이 上焦, 제이의 현상이 中焦, 그리고 제삼의 현상이 下焦의 作用으로 추상되고 있다.

이상은 三焦라고 하는 言語의 의의를 그 語源에 근거하여 검사한 것이지만, 이같은 변화는 전부 熱作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再言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三焦의 焦字가 佳와 火를 組合해서 형성되는 文字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固體인 穀物도 加熱하면 柔軟하고, 夏季氣溫이 높을 때는 한량한 冬季節에 비해서 물체가 腐敗되기 쉽다는 등등의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물체가 질척질척하게 柔軟해지기 위해서는 熱이 필요하다는 素朴한 생각이 外部로부터 섭취한 음식물이 胃腸에서 소화되어 질척질척한 糜羹상태가 되는 것도 역시 溫熱作用 때문일 것이라는 상상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때에 熱은 과연 신체 어느곳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보았지만, 그같은 機機는 身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길이 없다. 생명을 지닌 사람에게게는 언제나 體溫이 존재하고 있다. 人體의 體溫發生은 酸化作用 즉 燃燒現象때문이라는 것은 現代醫學의 常識에서 본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200餘年前인 古代에 있어서는 이것이 含水炭素의 燃燒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어찌되었든 살고 있는 人間의 몸은 溫熱을 느끼지만 죽으면 차가워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器管중에서 어디인가에 몸에 溫熱을 주는 것이 없어서는 않된다

는 것도 醫學的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그렇다면 그 기관은 무엇인가? 五臟五腑 중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결론하에 생각해낸 것이 곧 三焦라고 하는 無形의 기관이 아닌가 抽象되고 있다. 일부 학자간에는 心의 君火, 또는 心包의 相火가 溫熱의 근원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心包의 相火에 의해서 熱作用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君火 相火說은 전혀 근거가 없는 臆說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君火 또는 相火는 五行說에 의한 木火土金水の 火를 적용시킨 것으로 溫熱 그 자체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성이 없으며, 古典 어느곳에서도 그같은 根據를 찾아 볼 수가 없다. 心包와 동일시되고 있는 膻中에 대하여 <素問 靈蘭秘傳論>에는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이라 하였는가 하면 <靈樞 樞脹論>에는 <膻中者 心主之官城也>라는 記述은 있으나 溫熱에 관한것은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靈樞 邪客論>에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臟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心主之脈也.>라 하여 心包라고 하는 語句가 있으나 이것은 溫熱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로 心과 心包絡의 相關性을 言及한 것제 불과한 것이다.

(2). 上, 中, 下의 區分과 分布 및 作用上에서 본 三焦의 意義

(2)-1 上焦

上焦出於胃上口, 并咽, 以上, 貫膈而布胸中, 走液循太陰之分而行, 還之陽明, 上至舌, 下足陽明. <靈樞 營衛生會篇>

原典上的 “胃上口”는 오늘날의 噴門을, 并咽의 “咽”은 단순한 咽喉(목구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說問>에는 咽은

噎(목구멍이 막히다)과 同系의 言語로 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咽喉가 아니고 食道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靈樞 腸胃篇>에 [噴門重十兩, 廣一寸半, 至胃腸一尺六寸]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여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咽은 분명히 食道를 指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周代의 一兩은 現代의 약十六g) [布胸中走腋]상에 “布”란 迫이나 薄과 同系의 言語로 몸에 密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原典의 뜻은 가슴 가득히 퍼져서 겨드랑으로 走向한다는 것이다. [循太陰之分]의 “太陰之分”은 手太陰肺經을 指稱한 것으로 곧 中府, 雲門의 走行區域의 의미인 것이다. “循”자는 現代漢字 解釋上에서는 “순환하다, 돌다”로 해석하고 있으나, 본의는 결코 돌다는 것이 아니다. “循”은 瓦 盾을 조합한 文字로 盾은 전쟁할 때 창, 칼, 화살 따위를 막아내는 방패를 “ ”는 간다는 뜻을 함축한 것으로 巡과 同系의 言語로 소정의 루-트를 따라서 주행한다는 뜻이라 하겠다. [還之陽明, 上至舌]의 “還”은 復(돌아간다 성문)과 同義語로 빙빙 한바퀴 돌아서 원위치에 돌아오는 것이 본의라 하였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陽明은 手陽明大腸經을 指稱하고 있다.

이상의 해설을 요약하면 上焦란 胃의 噴門부근에서 始發하여 食道와 竝行, 위로 상행, 횡격막을 관통한 후 手陽明大腸經으로 流注한후 위로 上行, 舌部에 이른다음 足陽明胃經방향으로 下行하고 있다는 것이다.

(2)-2. 中焦

中焦亦并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貫於此<靈樞 營衛生會篇>

[中焦亦并胃中]이한 中焦 역시 上焦와 동일하게 胃中(胃脘)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并”이란 두 개의 것이 대등하게 병행한다는 것으로 兩者間에 甲乙의 차이가 없다는 뜻인 것이다. [出上焦之後]의 “後”의 의미는 上焦와 병행하여 출구가 두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上焦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추상된다. 그 이유는 三焦의 語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佳의 肌肉을 가열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최초의 현상은 煙氣와 水蒸氣로 이것이 곧 上焦의 상태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제이의 변화가 곧 中焦의 作用으로 이것을 “出上焦之後”라 표현한 것이다. [泌糟粕]의 “糟粕”을 흔히 찌꺼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찌꺼기만을 한정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糟”은 米와 曹을 組合한 文字로 여러가지의 곡물을 끓여 모은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粕”은 米와 白을 組合한 文字로 쓸모가 없는 곡물의 찌꺼기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糟粕”은 有用, 無用이 混合된 物체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 하겠다. “泌”은 水와 必의 形成文字로 液體가 微細한 間隔에서 分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泌糟粕”이란, 소화되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糜羹을 짜서 액즙을 찌꺼기와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蒸津液>의 “津”은 水와 辵을 組合한 形成文字로 水를 筆先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水滴의 뜻인 것이다. 液은 水와 夜를 組合한 形成文字로 一滴一滴의 간격을 두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津과 液은 다같이 한방울 한방울 落水되고 있는 극소량의 液體를 의미하는 것으로 生體에 있어서는 唾液, 粘液, 裝液, 汗, 消化液, 體液등과 같이 생체의 조직중에서 스며 나오는 미량의 액체를 총칭하여 津液이라 한다. “蒸”은 蒸發의 蒸으로 액체에 熱氣가 加해져서 霧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整理, 要約하면 짜

서 나온 津液은 加熱되어 蒸氣의 상태 즉 霧狀이 된다는 것이다. 이곳 中焦에서도 上焦에서와 같이 熱문제가 介在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化其精微, 上注於肺脈]의 “精微”은 津液중에서 함유되고 있는 營衛의 氣가 되는 액기스를 指稱하는 것으로 액기스를 霧의 상태와 같이 氣體로 변화시켜서 肺脈으로 灌溉하고 肺脈으로 유입된 營衛의 氣는 肺脈에서 다시 五臟六腑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靈樞 營衛生會篇>에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胸於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五十而大會]라 記述하고 있다. [乃化而爲血]은 米羹을 짜서 된 津液의 일부는 증발되어 霧狀으로 肺脈에 灌溉하고, 일부는 변화되어 血이 된다는 것이다. 現代醫學上에서는 赤血球는 骨髓에서 만들어 진다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이지만 腸에서 만들어 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점이, 2000餘年前 血은 中焦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관점과 같다는 점, 매우 흥미있는 문제라 하겠다. [以奉生身]의 “生”은 育生을, 奉은 받들어 올리다(捧)의 뜻으로 신체를 소중하게 育生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換言하면 三焦중에서 中焦의 作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2)-3 下焦

下焦者, 別廻腸, 注於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於胃中, 成糟粕, 而俱下於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下焦, 而滲入膀胱.<靈樞 營衛生會篇>

現代解剖學에 依據하면 空腸은 腸의 上半으로 주로 腹腔의 좌상부를 點하고 廻腸은 腸의 下半으로 腹腔의 우하부를 點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0餘年前 空腸이나 廻腸이라는 解剖學的 고 유명사가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의심의 여

지가 있다. 왜냐하면, <靈樞 腸胃篇>에 기술된 [胃紆曲屈, 伸之長二尺六寸, 大一尺五寸, 徑五寸大容二斗五升, 小腸後附脊, 左環廻周囊積, 其注於廻腸者, 外附於臍上, 廻運環十六曲, 大二寸半, 徑八分分之小半, 長三丈三尺, 廻腸當臍左環, 廻周葉積而下, 廻運環反十六曲, 大四寸, 徑一寸寸之小半, 長二丈一尺]의 문장을 살펴보면 胃, 小腸, 廻腸 등의 語句는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現代醫學에서 말하는 내용과는懸隔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小腸길이는 三丈三尺, 廻腸의 길이는 二丈一尺으로 一丈二尺의 차이는 있지만 屈曲度는 同一하게 十六曲하고 있다는 문장을 볼때 廻腸은 아마도 현대의학상에서 말하는 廻腸(小腸의 후반부)과 大腸의 일부를 포함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여간 廻腸部分이 三焦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下焦는 이같은 개념을 지닌 廻腸部分에 作用하여 水液의 浸透, 清濁分別 등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 하겠다. 水를 調整하여 水流의 強弱을 齊一하는 것을 “濟”라고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에서 攝取한 水分과 穀類는 위의 消化作用에 의하여 雜然하게 혼합된 糜羹의 상태로 小腸을 경유한 다음 大腸으로 내려간다. 小腸에서도 消化와 吸收는 물론이고 進行되면서 水分과 찌꺼기를 分離, 水分은 下焦를 통해서 膀胱에 滲入하고 찌꺼기를 肛門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곧 [濟泌別汁, 循下焦, 而滲入膀胱]의 의의인 것이다.

이상은 <靈樞 營衛生會篇>중에 三焦와 연관이 있는 原典을 抽出하여 上焦, 中焦, 下焦의 部位의 區分과 그 區分된 범위에서 어떤 生理作用이 營爲되고 있는지를 연구 검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총체적인 三焦의 生理作用은 아닌 것이다. 臟腑論上에서 三焦라고 하는 기관이 六腑의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다른 五腑

와 같이 일정한 形狀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위치에 고정된 기관도 아니다. 하지만 全身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活動을 전개하면서 여러가지의 生理作用을 營爲하고 있다는 것이 東洋醫學의 인 三焦의 生理觀인 것이다.

(3).原典上에서 본 三焦의 生理作用

(3)-1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素問 六節臟象論>

[倉廩本]의 “倉廩”은 여러가지 곡물 즉 食糧을 收藏하는 倉庫를 뜻하는 것으로 倉廩本이란 “穀倉의 本家”를 의미, 現代醫學의 용어상에서 해석한다면 “滋養의 本家”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生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穀物 즉 食糧을 攝取, 消化吸收하여 生체활동에 필요한 營養素를 공급하는 근원의 곳간이라는 뜻이다. [營之居也]의 “營”의 原義는 周圍를 圓形으로 區劃된 中央에 起居한다는 뜻으로 原典상의 營之居란 身體를 한바퀴 甁 돌아서 營養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營”에 대해서 <素問 痺論篇>에 [營者水穀之精氣也]라 하여 體外에서 攝取한 水穀을 消化한것(액기스)이라 해설하고 있다.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의 “糟粕”은 외부로 부터 攝取한 雜多한 食物을 그리고 “味”는 五味(營養素)를 “化”는 形態의 變化를 指稱하는 것으로 이를 정리하면 섭취한 食物은 消化作用을 통해서 다양한 營養素로 變化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入出”은 出入을, 즉 들어온 것을 加工, 變化시켜서 다음 기관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原典 <六節臟象論>에 의하면, 三焦라는 기관은 脾, 胃, 大腸, 小腸등과 協同하여 消化吸收와 같은 作用의 일부를 擔當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擔當하는 부서는 이미 검사한바 있는 溫熱에 의한 食

物腐熟의 助成이라 하겠다.

(3)-2 水穀入於口, 其味有五, 各注其海, 津液各走其道. 故三焦出氣以溫肌肉充皮膚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 <靈樞 五臟津液別論>

[其味有五, 各注其海]의 “味”는 酸, 苦, 甘, 辛, 鹹의 五味를, “海”에 대해서 유일하게 “氣海”만을 거론하는 학자도 있으나 <靈樞 海論>에 기술된 [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以應四海也.] [胃者水穀之海, 膻中者衛氣之海, 腦爲髓之海, 衝脈者爲十二經之海]의 주 문장을 감안할때 氣海만을 指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외부로부터 섭취된 水穀은 일단 胃腸으로 流入된 후 胃의 消化作用에 의해서 생성된 營養素는 四海로 灌溉됨으로서 人體活動을 促進하는 原動力이 된다는 것이다. [津液各走其道]의 “各走其道”란 津液의 活動部位는 全身에 걸쳐서 각기 擔當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部署로 도달하기 위해서 각각 소정의 길로 走行하고 있다는 것이다. [三焦出氣以溫肌肉]은 體溫發生의 作用을 언급한 것으로 三焦의 중요한 生理作用의 하나라 하겠다. 人體發生熱量의 三分之二는 筋肉內에서 주로 炭水化合物의 酸化作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現代醫學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科學이 全無했던 2000餘年前에 三焦의 氣가 肌肉을 따뜻하게 함으로서 體溫이 保存되고 食物의 腐熟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 古代人의 통찰력은 특이할 일이라 하겠다. [充皮膚爲其津]의 “充”의 原義는 成長이지만, 일반적으로는 充實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皮膚를 充實하게 해서 活力을 주는 것으로 [其津]의 “津”은 땀을 의미, 發汗作用에 의해서 體溫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其流而不行者爲液]은, 땀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體液으로 체내에 남아

서 여러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3)-3 三焦開發, 宣五穀味, 薰膚充身澤毛, 若霧露之漑, 是謂氣. 奏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 穀入氣滿, 洩澤注於骨, 骨屬屈伸, 洩澤補益腦髓, 皮膚潤澤, 是謂液. 中焦受氣取汁, 變化而赤, 是謂血. <靈樞 決氣篇>

[上焦開發]의 開發이란 封한 것을 切開하는 것으로 上焦가 開發되면 上焦의 氣는 上焦에서 流出하게 된다. [宣五穀味, 薰膚充身澤毛, 若霧露之漑]는 앞서 <五臟津液別論>에서 설명한 三焦의 生理作用과 氣의 意義를 定義한 것이다. 五穀의 味란 五味의 뜻으로 生體의 營養原을 指稱하고 있다. “宣”이란 전신 구석구석까지 분포하는 것을, “薰”의 原義는 “上出火燃”이지만, 여기서는 氣體가 자욱이 낀다는 의미로 해석, 香氣가 자욱이 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原典上의 [薰膚]는 <五臟津液別論>에서 言及한 [上焦出氣以溫肌肉充皮膚爲其津]과 관련되고 있으며 現代醫學에서 말하고 있는 筋肉內部的 燃燒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充身]은 신체를 充實하게 해서 活力을 준다는 것을, “澤毛”는 毛髮에 光澤을 주어서 반들반들하게 保存하는 것을 의미한다. [若霧露之漑]는 앞서 <靈樞 營衛生會篇>에서 언급한 [上焦如霧, 中焦如溝, 下焦如瀆]중에 上焦如霧를 구체적으로 論한 것이라 하겠다. “漑”란 물을 가득히 따르는 것으로 그 이상 넣을 때는 넘쳐 흐르는 상태까지 가득히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곳이나 평균적으로 골고루 미친다는 뜻이다. 이상의 설명을 要約하면 上焦의 氣가 전신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덮어서 五味(營養素)를 供給 肌肉을 따뜻하게 해서 身體의 活力과 毛髮의 潤氣를 주는 것은 마치 霧露가 어느곳이나 빈틈없이 골고루 퍼진다는 뜻과 같다는 것이다. [奏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에 “奏理”한 皮膚의 津液의 集

合體라는 뜻으로 皮膚의 別稱을, “泄”은 고인 물을 옆으로 끌어서 밖으로 세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發”은 활을 튀겨 내는 것이 原義로 이것이 轉換되어 左右로 연다, 또는 “일어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따라서 原典의 [發泄]은 “奏理가 排泄作用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으로 現代醫學의 皮膚의 發汗作用에 의하여”라는 의미다. “溤”이란, 한곳에 모여든다는 뜻으로 배가 모이는 浦口를 “溤”이라하고 자동차가 集合하는 곳을 “주”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類型이라 하겠다. “汗出溤溤”이란 奏理의 各處에서 汗이 스며나와서 이것이 集合하여 구슬과 같이 똑똑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穀入氣滿, 洩澤注於骨, 骨屬屈伸]의 “穀”은 營養을, “洩澤”은 물기를 가득히 머금다는 뜻으로, 原典의 大義는 “영양을 함유한 氣가 水氣를 가득히 머금은 液狀이 되어 골속으로 流注되고 있다.”는 뜻이다. [骨屬屈伸]은 關節의 潤滑油的 役割을 뜻한다. [洩澤補益腦髓, 皮膚潤澤, 是謂液]상에 “洩澤”은 “불거져 나온 水氣”의 뜻으로 骨로 流注한 다음 거기에서 充滿되어 불거져나온 液이라는 의미라 하겠다. 腦髓에는 腦脊髓液이 있지만, 그것은 점차 減少하기 때문에 그것을 補益한다는 것이다. [皮膚潤澤]은 皮膚를 축축하게 적셔서 光澤을 내는 것을 말한다. [中焦受氣取汁, 變化而赤, 是謂血]은 中焦는 上焦에서 받은 氣를 作用시켜서 피로 變化시킨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中焦의 중요한 生理作用이라 하겠다.

(3)-4 三焦者決瀆之官, 水道出焉. <素問靈蘭秘典論篇>

[決瀆之官]의 “決”은 切을, “瀆”은 溝를 의미, 所要에 應해서 溝의 一部를 切開해서 가운데 있는 물을 유출시키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기관이란 뜻으로 이것

은 곧 通路의 障礙를 제거하여 물의 흐름을 圓滑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水道出焉]의 “水”는 일반적으로 언급할 경우에는 단순한 물이지만, 東洋醫學上에서는 液狀의 것을 指稱하고 있다. “道”는 先頭에 서서 길을 가는 것 즉 Lead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古典에서는 往往 “導”와 混用하는 경우가 있으나 導는 질질 길게 인출하는 것을, 道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을 指稱한다. “出”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돌연 어떤 물체가 出現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水道出焉의 本意는 “液體의 흐름이 三焦의 作用에 의해서 出現한다는 뜻이다.”

以上 <素問靈蘭秘典論>에서 敎示되고 있는 사항을 要約하면 三焦의 중요한 生理作用의 一環으로 氣, 津, 液등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通路를 열어서 그 흐름을 澁滯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5 五穀之津液, 和合而爲膏者, 內滲入骨空, 補益腦髓, 而下流於陰股, 陰陽不和則使液溢而下流於陰, 體液皆減而下, 下過度則虛, 虛故腰背痛而脛瘦, 陰陽氣道不通, 四海塞閉, 三焦不寫, 津液不和, 水穀并於腸胃之中, 別於迴腸, 留於下焦, 不得滲膀胱則下焦脹, 水溢則爲水脹. 此津液五別之逆順也. <靈樞五臟津液別論>

以上の 原典敎示는 三焦의 生理作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津液이 關節, 또는 腦髓등을 補益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體液過度나 減少에 隨伴하여 일어나는 障礙, 또는 三焦의 機能不全에서 發生하는 變化등 三焦의 生理作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檢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五穀之津液, 和合而爲膏者 內滲入骨空, 補益腦髓, 而下流於陰股]상에 “膏”는 脂肪을, “骨空”은 骨節交會의 空隙, 即 關節部의 間隙을 의미하는 것으로 現

代醫學의 用語上에서는 關節腔이라 하겠다. “陰股”란 股의 內側으로 陰部에 가까운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陰”이란 前陰 後陰의 二陰을 指稱하고 있다. 本原典上에 記述되어 있는 것을 要約하면 津液이 和合하여 脂肪과 같은 상태가 되고 각 關節部에 滲入하여 關節腔의 內面을 적셔서 마치 機械油와 같은 役割을 하고 또한 腦髓(髓海)에 滲入하여 그 髓液을 補益할 뿐만 아니라 脊髓속으로 내려가서 脊髓의 보호와 營養의 보합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陰陽不和則使液溢而下流於陰, 體液皆滅而下, 下過度則虛, 虛故腰背痛而徑瘦]. 만약 生體의 陰陽의 不調和로 和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三焦의 作用 역시 원활하지 못해서 液은 陰에서 體外로 排泄되고 만다는 것이다. 腦脊髓液은 腦軟膜의 一部分인 第三腦室脈絡叢에서 分비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靜脈독(일부는 神經稍에 따라서 排出)에서 流出되고 있다는 것은 現代醫學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지만, 古代에서도 體液은 減少하여 배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배설이 과도한 경우에는 虛의 상태가 되고 이로 因해서 腰脊部에 痛症의 발생과 徑(정강이)에 脫力感이 온다는 것이다. [陰陽氣道不通, 四海皆塞, 三焦不寫, 津液不和].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陰陽의 氣가 不通하게 되어 四海 卽 髓海, 血海, 氣海, 水穀之海등이 閉塞하게 되면, 三焦는 본래의 임무인 水寫능력과 津液을 和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水穀并於腸胃之中, 別於迴腸, 留於下焦, 不得滲膀胱則下焦脹, 水溢則爲水脹]. 이것은 三焦의 機能低下로 인한 四海閉塞의 결과, 胃中에 들어왔던 水穀은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한 糟粕의 分泌도 원활치 못해서 그대로 胃中에 并居하여 迴腸으로 내려간다 하여도 下焦에 停滯하여 膀胱으로 滲入이 불가능

하게 된다. 때문에 下焦는 부어오르게 된다는 뜻이다. [水溢則爲水脹]상에 “水脹”이란 水濕으로 腹部가 부어 오르는 병으로 一名 “脹滿”이라고도 한다.

(3)-6 三焦와 心包絡과의 관계

經絡面에서 보면 手厥陰經은 三焦를 엮고 있으면서 心包에 所屬하고 있는가 하면, 手少陽經은 이와 반대로 心包를 엮고 있으면서 三焦에 所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兩者는 機能上에 있어서나 治療上에 있어서나 밀접한 相關關係가 있다.

Ⅲ. 結論

以上 三焦에 대해서 語源을 근거로 그 意義를 檢査하고 또한 東洋醫學의 原典이라고 指稱되고 있는 <素問> <靈樞>중에 記述되고 있는 三焦에 관련이 있는 사항을 抽出하여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가 있었다.

(1). 三焦의 區分과 그 分布

三焦는 他的 臟腑와 같이 일정한 形狀과 고정된 部位가 없으면서 그 組織은 全身에 걸쳐서 分布되고 있다. 이것을 上焦, 中焦, 下焦의 三個로 區分하고 있다.

上焦는 胃의 上口(噴門)에서 나와서 食道와 竝行하여 胸膈膜을 貫通, 胸廓全般에 分布하고 있으며, 특히 太陰, 陽明의 走行 區域과 關聯하고 手太陰肺經과 手厥陰心包經을 包括하고 있다.

中焦는 上焦出後에 나와서 上腹과 脾胃의 兩臟을 包括하는 범위에 分布하고 있다. 특히 脾胃에 관련된 足陽明胃經과 足太陰脾經을 包括하고 있다.

下焦는 胃의 下口(幽門)에서 二陰과 下腹部, 그리고 肝腎大小腸膀胱등의 臟器를 包括하는 범위에 分포한다. 특히 大小腸과 膀胱에 관련된 足少陰腎經과 足厥陰肝經

을 包括하고 있다.

(2).三焦의 生理作用

三焦의 生理作用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歸結된다.

①. 熱作用

三焦는 肌肉을 따뜻하게 해서 體溫을 發生하고 그럼으로서 食物의 消化腐熟 및 吸收를 助成함으로서 身體各部를 充實하게 해서 活力을 왕성하게 한다.

②. 氣血津液의 調整作用

胃中에서 糜羹狀이 된 糟粕을 分泌하여 津液을 만들고 그 津液을 蒸해서 氣로 化하게 하는가 하면, 精微를 化하여 肺脈에 流注하고 또한 氣를 받아서 汗을 取하여 化해서 血을 만드는가 하면 이들 氣血의 作用을 統制한다.

③. 水寫作用

適時氣血津液의 流動하는 通路를 열거나 혹은 障礙를 除去 또는 인도하여 全身에 혹은 體外로 排泄함으로서 원활한 代謝作用을 助成한다.